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정책 수립을 위한 사서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Libraria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of the Joint Preservation Archive in Chungnam Library

곽 승 진 (Seung-Jin Kwak)** , 노 영 희 (Younghee Noh)***
강 은 영 (Eun Yeong Kang)**** , 김 정 택 (Jeong-Taek Kim)*****
곽 우 정 (Woojung Kwak)*****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 결과 |
| 2. 선행 연구 | 5. 운영 정책 방향 |
| 3. 연구방법 | 6. 결론 및 제언 |

초 록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보존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보존자료관을 설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대표도서관인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구체적인 운영정책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 방법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동보존자료관의 목표인 인쇄자료와 디지털자료의 공동보존 및 활용에 맞는 운영정책 및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에서는 참여 도서관의 보존공간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소유권과 함께 우선적으로 이전해야한다. 둘째, 신속하고 편리한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하여 전체 참여 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자료관리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 셋째, 공동보존자료관에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료의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ies are installing joint preservation archives to solve the problem of lack of preservation space in librarie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public library librarian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 FGI method in order to prepare specific operational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Chungnam Library Joint Preservation Archive, which is a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y. Based on this, an operation policy and implementation plan suitable for the common preservation and use of printed and digital data, which is the goal of the Common Preservation Archive, was propos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joint preservation library of the Chungnam Library should first transfer books and serials along with ownership in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 and demand of the preservation space of participating librar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peration management system that can be used by all participating libraries in order to quickly and conveniently operate the joint preservation data center and connect it with a cloud-based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Third, a plan for digitizing and archiving data that was judged to be digitized in the Common Preservation Archive was proposed.

키워드: 보존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공동보존서고, 지역대표도서관, 충남도서관
Deposit Libraries,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Cooperative Storage Facilities, Regional Central Libraries, Chungnam Library

- * 본 연구는 2020년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정책 및 추진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 / ISNI 0000 0004 6812 0586)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교신저자)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ykang@silla.ac.kr / ISNI 0000 0004 6844 8725) (공동저자)
***** 배재대학교 학술정보팀 팀장(kjt@pcu.ac.kr / ISNI 0000 0004 6844 3334)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woojung2243@naver.com / ISNI 0000 0004 7706 4758)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20년 10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20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11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4): 27-51, 202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4.027>

1. 서론

공공도서관 장서의 최근 전년 대비 증가율은 6%에 육박하고 있으며, 도서관들이 장서 증가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보존과 이관 혹은 폐기가 필수적이다. 또한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인포메이션 커먼스(information commons) 등 새로운 이용자서비스 공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자료의 이관을 통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별 도서관에서 별도 보존 시설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도서관법에서는 장서 증가 등에 따른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장서를 공동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2조 대표도서관 설치 의무에 따라 2018년 4월 대표도서관인 충남도서관과 울산도서관이 개관하였다. 대표도서관은 지역 도서관 시책 수립 지원, 시·도 단위 자료 수집 및 제공, 지역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 공동보존 등 지역의 도서관정책을 집행하는 실직적인 행정기관으로, 법률 제23조 제1호에서는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을, 제4호는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을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여 지역의 자료를 공동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보존자료관은 인쇄자료의 수장 공간부족 문제의 해결 및 자료 수명 연장과 인쇄 및

디지털 자료의 공동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도서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자료의 공동보존 및 서비스 시설로서 정의된다.

충남도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보존공간의 부족 문제로 2~3년 이후 매년 약 80만권 이상 도서를 폐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개관과 함께 충남도서관에 공동보존자료관이 설치되었으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운영방안 미비로 아직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정책 및 추진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과 관련하여 사서 설문조사와 FGI 조사를 기반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인쇄자료와 디지털자료의 공동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에 맞는 운영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공동보존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 해외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구체적인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사례가 주를 이루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최초로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평생학습관의 사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는 크게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와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모형 제안에 관한 연구, 보존환경 및 현황에 관한 분석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공동보존도서관 연구 초기에 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시기는 국내에 공동보존도서관은 거의 없던 시기이며, 조용완(2003)과 강현민(2006), 신지연과 김유승(2011)은 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공동보존도서관의 운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공동보존도서관 건립을 제안하였다. 각각 대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실제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위한 건립 및 운영 모형 제안 연구가 시행되었다.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을 통한 자료의 공동보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윤희윤(2013)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조건, 목적, 기대효과 등의 도출을 통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연구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건립 모형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는 강은영, 장덕현(2018)의 부산 경남지역 국립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모형 제안을 위한 연구와, 강은영(2018)의 해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자료이관지침과 자료제공지침 분야 파악 연구가 있었다.

조용완, 노지현(2013)과 서혜란, 김선에, 강

은영(2015)은 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자의 경우 국내의 공동보존서고의 보존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보존 실태를 파악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공동보존서고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논의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서관법에서 자료의 보존을 대표도서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지역대표도서관, 울산지역대표도서관 등에서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체계적인 운영 정책 방안을 설립하기 위해 충남도내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 및 FGI 조사를 통해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후 공동보존자료관의 참여기관인 충남도내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운영 정책 방안 수립 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시 충남도서관과 참여 도서관 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표 1〉 참조).

〈표 1〉 충남도내 공공도서관 사서 의견 수렴 및 핵심 그룹 인터뷰(FGI) 조사 방법론

구분		설문방법
설문 조사 방법론	설문대상	충남도내 공공도서관 사서
	설문기간	2020. 04. 27. - 2020. 05. 09.
	설문방법	충남도내 공공도서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설문지로 진행
	설문 회수	충남도내 공공도서관 62개관에 배포하였으며, 총 134명의 사서가 응답
핵심 그룹 인터뷰(FGI) 조사 방법론	일시	2020년 5월 29일(화), 10:30-12:00
	진행방법	온라인 화상회의 ZOOM
	참여자(7명)	예산군립도서관, 충남서부평생교육원, 공주시적의도서관, 천안시중앙도서관, 광천공공도서관, 금산공공도서관, 아산도서관

3.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설문지의 문항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문항구성은 크게 응답자의 크게 일반사항, 운영, 조직 및 인력, 이용 및 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의 문항 각각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운영 관련 문항은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기능, 향후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의 기준·유형·이관주기·소유권 등이 있으며, 조직 및 인력 관련 문항은 향후 체계적인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해 충남도서관 내 조직 및 인력의 필요성과 별도의 운영위원회 필요성, 역할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용 및 서비스 관련 문항은 향후 이관된 자료의 이용권한과 서비스 방법 등,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문항은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우선 주제 및 유형 등으로 구성하였다(〈표 2〉 참조).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FGI 조사지의 문

항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항들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조사지의 문항구성은 크게 응답자의 크게 일반사항, 개별 도서관 보존서고, 공동보존자료관 이용여부 및 역할, 서비스, 조직,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 관련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표 3〉 참조).

4. 연구 결과

4.1 사서 인식조사 설문 결과

4.1.1 인구통계학적 특징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정책 수립을 위하여 충남도내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사서 134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았으며, 남성 25명(18.65%), 여성 109명(81.34%)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5년 미만 58명(43.28%), 5년 ~ 10년 미만 24명(17.91%), 10년 ~ 15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각 19명(14.17%), 15년 ~ 20년 미만 14명(10.44%)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2〉 사서 의견조사 설문지 문항

항목	내용	출처
일반사항	성별, 근무경력, 담당업무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관련 문항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자료 이관 필요성	노지현 외(2013)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기능	서혜란 외(2013); 남영준 외(2018)
	향후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 기준	윤희윤(2013)
	향후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 유형	강은영, 장덕현(2017)
	자료이관의 주기	강은영, 장덕현(2017); 남영준 외(2018)
	자료 이관 시 자료의 소유권	노지현 외(2013); 윤희윤(2013); 강은영, 장덕현(2017); 남영준 외(2018)
	자료 이관 시 소유권 관련 문제점 및 해결사항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경비		
조직 및 인력	충남도서관 내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관련 전담 부서 및 인력 필요성	서혜란 외(2013)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한 위원회 필요성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위원회의 안건 적합성	
이용 및 서비스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소장자료 이용 권한	
	이관한 자료 서비스 제공 방법	노지현 외(2013)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인식조사	클라우드 기반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클라우드 기반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시기	
	우선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해야 할 주제	남영준 외(2018)
	우선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해야 할 자료 유형	남영준 외(2018)
	그 외 기타 의견	

〈표 3〉 충남도내 공공도서관 핵심 그룹 인터뷰(FGI) 조사 내용

항목	내용
일반사항	이름, 소속, 담당업무
각 도서관 보존서고 관련	각 도서관의 보존서고 현황
	다른 공간을 보존서고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유와 문제점 보존서고가 포화된 도서관의 운영 현황
공동보존자료관 이용여부 및 역할 관련	향후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이용 여부 및 목적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시 충남도서관의 역할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시 참여 도서관의 역할
공동보존자료관 서비스	공동보존자료관에 원하는 서비스
	이관된 자료 활용을 위한 대출, 열람, 원문제공서비스 외 신규서비스 여부 디지털 아카이빙의 범위와 서비스 방향
공동보존자료관 조직	공동보존자료관을 활용을 위한 협의체(협력 네트워크)의 효과 및 다룰 안건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자료 이관 시 단계적 추진에 대한 의견
	공동보존자료관 추진 시기의 적합성
	자료 이관 시 소유권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예산에 대한 의견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 관련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충돌 부분에 대한 의견
그 외 추가의견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N	%
성별	남성	25	18.65
	여성	109	81.34
근무경력	5년 미만	58	43.28
	5년 ~ 10년 미만	24	17.91
	10년 ~ 15년 미만	19	14.17
	15년 ~ 20년 미만	14	10.44
	20년 이상	19	14.17
주요업무 (중복응답)	조직, 인사 회계 등 도서관 운영	19	14.18
	일반 사무, 행정 업무	30	22.39
	정보서비스 업무	27	20.15
	국고 지원 사업 담당	11	8.21
	도서관 협력 사업 및 운영	34	25.37
	독서문화 강좌·프로그램 관련 업무	71	52.99
	전산업무	8	5.97
	자료 개발(선정·수집·인수·관리)	45	33.58
	특화프로그램 운영	16	11.94
	자료 대출·반납·배가(보존서고 포함) 등 관리	49	36.57
기타	7	5.22	

4.1.2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관련

1) 공동보존자료관 자료 이관 필요성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자료 이관에 대해 54.48%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19.41%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충남도내 공공도서관의 보존서고가 2-3년 내로 80% 이상이 포화될 것이라는 것과 연관하여 볼 수 있다 (〈표 5〉 참조).

2) 공동보존자료관 기능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기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중자료 보존의 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토자료, 특성화 자료 구축, 이관 자료 중 중요한 자료(희귀본 등)의 디지털화, 이관자료의 서비스(대출, 열람, DDS 등) 제공 등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지역자료(충남)의 보존 중심 기능,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한 지역정체성 관련 정보자료 컬렉션 구성 및 제공, 공동보존자료관에 현재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절판도서, 품질도서 등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더불어, 공동보존자료관의 자료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온라인 열람 기능, 소장하고 있는 귀중자료 및 특성화 자료의 전시, 상호대차서비스 등이 나타났다. 이로 보아 향후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은 귀중자료의 보존과 충청학, 백제학 등과 같은 향토자료 구축에 중점을 두며, 더불어 중요한 자료의 디지털화와 이관자료의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6〉 참조).

〈표 5〉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자료 이관 필요성

구분	N	%	M	Std
전혀 필요하지 않다	6	4.48	3.51	1.109
필요하지 않다	20	14.93		
보통이다	35	26.12		
필요하다	46	34.33		
매우 필요하다	27	20.15		
계	134	100.00		

〈표 6〉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기능

서비스 항목	매우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M	Std
	N	%	N	%	N	%	N	%	N	%		
귀중자료 보존의 기능	2	1.49	1	0.75	7	5.22	49	36.57	75	55.97	4.45	0.762
향토자료 특성화 자료 구축	2	1.49	1	0.75	12	8.96	49	36.57	70	52.24	4.37	0.801
이용되지 않는 자료의 이관	15	11.19	17	12.69	45	33.58	34	25.37	23	17.16	3.25	1.210
포화상태인 지역 도서관 보존 서고의 자료 이관	8	5.97	19	14.18	37	27.61	37	27.61	33	24.63	3.51	1.181
훼손 도서 복원 및 수리	13	9.70	30	22.39	45	33.58	31	23.13	15	11.19	3.04	1.140
이관자료 중 중요한 자료(회귀본 등)의 디지털화	2	1.49	1	0.75	14	10.45	49	36.57	68	50.75	4.34	0.814
이관자료의 서비스(대출, 열람, DDS 등) 제공	3	2.24	4	2.99	28	20.90	50	37.31	49	36.57	4.03	0.949

3) 향후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 기준 및 유형

향후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원형보존이 중요한 자료, 2순위로 매체변형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3순위로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 4순위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향후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단행본·참고도서·정기간행물에 대한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낱장자료·사진·스크랩북·신문·지도·포스트, 사진필름(흑백)·마이크로필름·자기매체(CD/DVD)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에 향후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시 단행본·참고도서·정기간행물의 유형이 주를 이루겠지만, 이와 더불어 사진, 마이크로필름, 자기매체, 미술품, 박물관류 등의 보존을 위한 사전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8〉 참조).

4) 공동보존자료관으로의 자료이관 주기

공동보존자료관으로의 자료이관 주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 1회(1년 주기)가 55.22%, 연 2회가 32.84%로 나타나, 향후 자료이관 주기 선정 시 연 1회 또는 연 2회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표 9〉 참조).

〈표 7〉 향후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 기준(해당사항/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합계	순위
	N	점수	N	점수	N	점수	N	점수	N	점수	N	점수	N	점수	N	점수	N	점수		
원형보존이 중요한 자료	115	1035	9	72	0	0	3	18	2	10	0	0	0	0	0	0	0	0	1135	1위
폐기대상으로 선정한 자료	3	27	9	72	7	49	4	24	1	5	1	4		0	6	12	0	0	193	8위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	6	54	16	128	13	91	6	36	4	20	1	4	5	15		0	0	0	348	3위
복본 또는 내용의 대부분이 중복성인 자료	2	18	7	56	6	42	10	60	3	15	6	24	0	0	2	4	0	0	219	6위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	2	18	17	136	12	84	4	24	7	35	3	12	3	9	2	4	0	0	322	4위
개정판이 발간된 경우의 구판자료	0	0	10	80	11	77	7	42	2	10	7	28	0	0	2	4	0	0	241	5위
전문적인 수복이 필요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0	0	8	64	8	56	6	36	3	15	3	12	6	18	3	6	0	0	207	7위
매체변형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6	54	51	408	20	140	3	18	3	15	0	0	4	12	2	4	0	0	651	2위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위

* 점수는 순위별로 가중치를 곱한 값임(1순위 9점 ~ 9순위 1점으로 가중치 설정함)

〈표 8〉 향후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 유형(해당사항/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합계	순위
	N	점수	N	점수	N	점수	N	점수	N	점수	N	점수		
단행본,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105	630	2	10	3	12	0	0	0	0	0	0	652	1위
날장자료, 사진, 스크랩북, 신문, 지도, 포스트	12	72	64	320	7	28	3	9	2	4	0	0	433	2위
사진필름, 마이크로필름, 자기매체	8	48	30	150	24	96	4	12	0	0	0	0	306	3위
사진필름(칼라)	1	6	8	40	9	36	18	54	2	4	0	0	140	5위
미술품, 박물관	4	24	11	55	10	40	5	15	15	30	0	0	164	4위
기타	2	12	0	0	1	4	0	0	0	0	2	2	18	6위

* 1순위 6점 ~ 6순위 1점으로 가중치를 매겨 계산함

** 2명은 없음으로 응답하여 제외하고 분석함

〈표 9〉 자료이관의 주기의 적합성

구분	N	%
수시	7	5.22
매월	0	0.00
연 4회(분기별)	7	5.22
연 2회(반기별)	44	32.84
연 1회(1년 주기)	74	55.22
기타	2	1.49
계	134	100.00

5) 자료 이관 시 자료의 소유권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자료이관 시 이관자료의 소유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 도서관이 충남도서관에 자료와 함께 자료의 소유권도 함께 양도하는 형태가 4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도서관과 충남도서관이 공동으로 자료의 소유권을 갖는 형태가 20.90%, 개별 도서관이 충남도서관에 자료만 이관하고 자료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 형태가 20.15%로 나타났다.

특히 자료의 소유권의 경우, 소유권까지 모두 이관 시에 각 도서관별로 장서 수 감소와 더불어 도서관 평가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표 10〉 참조).

개별 도서관이 충남도서관에 자료와 함께 자료의 소유권도 함께 양도하는 형태, 개별 도서관이 충남도서관에 자료만 이관하고 자료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 형태 등 도서관별 계약 조건을 2~3개 마련하는 것도 권장된다고 하였다.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자료 이관과 관련한 문제점 및 해결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첫째, 이관하기에 앞서 이관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충남도서관과 각 개별 도서관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도서관 평가 시 도서관 보유 장서를 평가하고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면 보유 장서 수가 감소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은 첫째, 충남도서관에서 공동보존자료관을 총괄·관리하고, 소유권을 갖고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이관 이후 장서 통계의 문제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11〉 참조).

6)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경비

경비와 관련하여 이관경비, 운영경비, 이용경비 모두 충남도서관이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표도서관으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해야할 역할이기 때문에 경비에 대한 부담은 충남도서관이 부담해야 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표 12〉 참조).

〈표 10〉 자료 이관 시 자료의 소유권

구분	N	%
개별 도서관이 충남도서관에 자료만 이관하고 자료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 형태	27	20.15
개별 도서관이 충남도서관에 자료와 함께 자료의 소유권도 함께 양도하는 형태	60	44.78
개별 도서관이 모든 이관자료의 소유권은 갖되, 보존가치가 높은 일부자료의 소유권만 충남도서관이 양도하는 형태	9	6.72
개별 도서관이 모든 이관자료의 소유권을 충남도서관에 양도하되, 보존가치가 높은 일부자료의 소유권만 개별 도서관이 갖는 형태	9	6.72
개별 도서관과 충남도서관이 공동으로 자료의 소유권을 갖는 형태	28	20.90
기타	1	0.75
계	134	100.00

〈표 11〉 자료 이관 시 소유권 관련 문제점 및 해결사항에 대한 의견(서술형)

구분		빈도
문제점에 대한 의견	도서관 평가 시 소유권을 이관하면 보유 장서 수 감소로 평가에 불이익	4
	이관 도서 기준 명확하게 마련해야 함	5
	소유권 관련 논의 필요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함	2
	보존서고 도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정비	2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 및 명확한 근거 마련	4
	이관 시 복본 자료 추출에 대한 문제점도 고려해야 하면 이에 대한 기준 마련	1
	자료 이관에 따른 이동으로 대출/반납에 대한 부분 고려	1
	지역각가의 저서나 기증본의 경우 개별 도서관으로 소유권을 넘겼을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충남도서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1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소유권을 충남도서관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추후 장서 통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도서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부 의견도 있음	1
	충남도서관에서 공동보존 자료관을 총괄관리하고, 소유권을 각 개별 도서관이 갖고, 상호대차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봄	1

〈표 12〉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경비

구분		N	%
이관경비	충남도서관	59	44.03
	이관도서관	41	30.60
	충남도서관+이관도서관	34	25.37
운영경비	충남도서관	112	83.58
	이관도서관	2	1.49
	충남도서관+이관도서관	20	14.93
이용경비	충남도서관	102	76.12
	이관도서관	4	2.99
	충남도서관+이관도서관	28	20.90

4.1.3 조직 및 인력

1) 전담 부서 및 인력 필요성

공동보존자료관의 운영 관련 전담 부서 및 인력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3.28%로 나타나, 공동보존자료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부서 확대 및 인력 충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표 13〉 참조).

2)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위원회 필요성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한 위원회 필요성

에 대해 조사한 결과, 79.10%가 필요하다, 6.72%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안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동보존자료관의 역할 및 기능과 이관기준, 이관자료의 소유권, 이관자료의 서비스 기준 및 방법, 이관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표 13〉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관련 전담 부서 및 인력 필요성

구분	N	%	M	Std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0	4.34	0.648
필요하지 않다	2	1.49		
보통이다	7	5.22		
필요하다	69	51.49		
매우 필요하다	56	41.79		
계	134	100.00		

〈표 14〉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위원회의 안건 적합성(복수응답)

구분	N	%
공동보존자료관의 역할 및 기능	109	81.34
이관기준	107	79.85
이관자료의 소유권	75	55.97
제반 운영경비	52	38.81
이관자료의 복원	41	30.60
이관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64	47.76
이관자료의 서비스 기준 및 방법	71	52.99
기타	2	1.49

4.1.4 이용 및 서비스

1) 공동보존자료관 소장자료 이용 권한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소장자료 이용 권한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청남도 소재 공공도서관이 2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충청남도 소재 모든 도서관 23.88, 참여 도서관 20.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2) 이관한 자료 서비스 제공 방법

대출가능한 자료로는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한 자료배달서비스, 직접 방문을 통한 자료열람 및 대출서비스, 이메일을 이용한 자료전송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 불가능한 자료로는 직접 방문을 통한 자료열람 및 대출서비스, 이메일을 이용한 자료전송서비스,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한 자료복사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표 16〉 참조).

4.1.5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인식조사

1) 클라우드 기반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기반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과 함께 구축이 49.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법에 명시된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기에 구축 26.87% 등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2) 디지털 아카이빙 주제 및 자료유형

우선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해야할 주제로 충청학, 백제학, 행정자료가 가장 높게 나타나 특성화 자료를 우선적으로 아카이빙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18〉 참조).

〈표 15〉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소장자료 이용 권한

구분	N	%
참여 도서관	28	20.90
충청남도 소재 공공도서관	36	26.87
충청남도 소재 모든 도서관	32	23.88
전국의 공공도서관	16	11.94
전국의 모든 도서관	20	14.93
기타	2	1.49
계	134	100.00

〈표 16〉 이관한 자료 서비스 제공 방법

구분	N	%	
대출가능한 자료 (단행본 등)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한 자료배달서비스	75	55.97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한 자료복사서비스	40	29.85
	이메일을 이용한 자료전송서비스	44	32.84
	직접 방문을 통한 자료열람 및 대출서비스	62	46.27
	기타	2	1.49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연속간행물 등)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한 자료배달서비스	22	16.42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한 자료복사서비스	47	35.07
	이메일을 이용한 자료전송서비스	65	48.51
	직접 방문을 통한 자료열람 및 대출서비스	75	55.97
	기타	7	5.22

〈표 17〉 클라우드 기반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시기

구분	N	%
도서관법에 명시된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기에 구축해야 한다.	36	26.87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전이라도 빨리 구축해야 한다.	15	11.19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	66	49.25
기타	17	12.69
계	134	100.00

〈표 18〉 우선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해야 할 주제(복수응답)

구분	N	%	구분	N	%
충류	5	3.73	언어	2	1.49
철학	8	5.97	문학	13	9.70
종교	4	2.99	역사	21	15.67
사회과학	8	5.97	충청학(특성화자료)	123	91.79
자연과학	5	3.73	백제학(특성화자료)	114	85.07
기술과학	3	2.24	행정자료(특성화자료)	83	61.94
예술	7	5.22	기타	2	1.49

우선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해야 할 자료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청학, 백제학, 향토자료, 고문헌자료, 행정자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1.6 기타 의견

이 외에도 기타 의견으로는, 첫째, 보존과 이용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업무프로세스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별도로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2020년 4월) 하였는데, 충남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 뒤 편입 방식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에 통합자료관리시스템보다는 보존 관련 시스템만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둘째, 현재 공동보존자료관으로는 향후 부족할 수 있으니 공동보존자료관 전용관의 증축과 관련한 의견도 나타났다. 셋째,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 및 운영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표 19〉 참조).

4.1.7 사서 인식조사 기반 시사점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기능은 귀중자료 및 향토자료 보존과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은 귀중자료의 보존과 충청학, 백제학 등과 같은 향토자료 구축에 중점을 두며, 더불어 중요한 자료의 디지털화와 이관자료의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 기준은 충남 내 공공도서관들은 해당 도서관 내 보존서고에는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훼손된 자료 등 폐기 이전의 자료들을 이관하지만, 공동보존자료관에는 원형보존과 매체변환 등이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관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충남도서관의 공동보존자료관이 귀중자료 보존과 향토자료 구축, 이관자료의 디지털화 등의 기능을 수행했으면 하는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셋째,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 유형은 단행본·참고도서·정기간행물에 대한 유형이 가장 높

〈표 19〉 우선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해야 할 자료 유형(복수응답)

구분	N	%	구분	N	%
충청학(특성화자료)	109	81.34	사진/그림(충청관련)	55	41.04
백제학(특성화자료)	99	73.88	구술자료	23	17.16
행정자료(특성화자료)	72	53.73	실물자료	13	9.70
고문헌자료	81	60.45	브로슈어/팸플렛	11	8.21
향토자료	91	67.91	도안(지도, 도면 등)	20	14.93
단행본(충남관련)	48	35.82	CD/DVD(음원, 동영상)	8	5.97
보고서(충남관련)	42	31.34	신문(충남관련)	20	14.93
잡지(충남관련)	37	27.61	기타	0	0.00

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각 개별 도서관이 해당 유형을 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계획 시 단행본 유형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그 외의 유형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자료 이관 시 자료 소유권은 자료와 함께 자료의 소유권도 함께 양도하는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소유권을 이관하지 않겠다는 의견과, 공동 소유권 형태에 대한 의견도 높게 나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소유권까지 이관 시 장서 수 감소로 도서관 평가에 불이익이 있다는 점, 소유권을 이관하지 않을 시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물품관리법상의 자산등록문제 등으로 충남도서관과 각 개별 도서관 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유권 이관하지 않을 경우, 이관했을 경우,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등에 따른 장단점이 상이하므로, 그 중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기준을 선정할 지 충남도서관과 충남 내 개별 도서관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 및 조직 부분에서는 전담 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92.38%로 나타나 전담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

4.2 사서 핵심 그룹 인터뷰 결과

4.2.1 개별 도서관의 보존서고

다른 공간을 보존서고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유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보존서고 공간 자체가 없는 경우와 기존 보존서고 공간이 부족하여 다른 공간을 활용하여 이중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건물의 하중문제로 충분히 보존할 수 없으며, 이중 운영에 따른 자료관리의 어려움과 자료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보존서고가 포화된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보존서고가 포화된 도서관들은 지역 내 새로 짓는 도서관에 큰 규모의 보존서고를 설치하여 자료를 이관하여 공간을 확보하거나, 도서 폐기를 통해 보존서고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개별 도서관의 보존서고가 포화될 경우, 도서관별 폐기 기준에 따라 도서를 폐기하거나 지역 내 공동보존서고를 통해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4.2.2 공동보존자료관 이용 여부 및 역할

1) 향후 공동보존자료관 이용 여부 및 목적
향후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이용 여부 및 목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용 여

〈표 20〉 다른 공간을 보존서고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유와 문제점

이유	문제점
• 보존서고를 위한 공간 자체가 없어서 오래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2개 열람실 중 1개 폐쇄하여 보존서고로 사용)	• 건물 하중 문제 때문에 도서를 충분히 보존하지 못하고, 하중만큼만 보관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 지하 보존서고 공간 부족으로 이중 운영(지하1층, 지상4층)	• 이중 운영에 따른 자료관리의 어려움과 자료활용이 원활하지 못함

부는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의견과 추후 자세한 기준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활용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나타났으며,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지 않아서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추후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했을 때 각 시군 도서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 있는지에 따라 활용 여부 판단하겠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또한 공동보존자료관을 이용 시에는 일반 단행본 이관 보다는 향토자료, 지역자료, 희귀본, 소장 가치가 있으나 이용이 없는 도서, 절판도서 등을 이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이 많은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충남지역의 자료 보존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관한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표 21〉 참조).

2)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시 충남도서관의 역할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시 충남도서관의 역할로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기준 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시스템 구축, 이관된 자료의 서비스 등에 대한 역할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자료 이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준으로

는 이관자료의 기준, 이관자료의 소유권, 참여 도서관 범위, 이관 시 정적 절차, 이관 후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기준 필요하며, 충남도서관뿐만 아니라 시군 도서관, 교육청 도서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 공공도서관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와 관련한 의견으로, 이관된 자료의 열람 및 대출과 디지털아카이빙을 통한 원문제공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이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책 이음서비스 사업 연계에 대한 의견도 나타났다.

이에 향후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은 충남지역 보존업무의 허브로써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더불어 이관한 자료에 대한 보존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역할 수행해야 할 것이다(〈표 22〉 참조).

3)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시 참여 도서관의 역할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시 참여 도서관의 역할로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이관 기준에 적합한 도서를 선별하여 이관하는 것과 공동보존자료관과 이용자의 매개체로써 원활한 이용을 위한 홍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료에 대한 시스템의 목록 구축과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 등이 나타났다(〈표 23〉 참조).

〈표 21〉 향후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이용 여부 및 목적

활용 여부	향후 이용에 대한 고려사항	시사점 및 정책방향
(활용할 계획 있음) 단순 단행본 보다는 희귀본 및 향토자료 등 위주 (보류)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활용 여부 판단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관된 자료의 이용 불편 여부에 따라 활용 여부 결정 예정 √ 어떤 자료를 이관하는 지에 따라 활용 여부 결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관한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표 22〉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시 충남도서관의 역할

내용	빈도	시사점 및 정책방향
자료 이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준 마련	4	✓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더불어 이관된 자료에 대한 보존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역할 수행
관리시스템 또는 통합시스템 구축	3	
이관된 자료의 서비스(열람, 대출 등)	2	
이관된 자료의 관리 및 보존	1	
희귀본 및 향토자료 등의 디지털 아카이빙	1	

〈표 23〉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시 참여 도서관의 역할

내용	빈도	시사점 및 정책방향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시 기준안에 맞는 도서를 선별하여 이관하는 것	5	✓ 이관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여 이관하는 것과 원활한 이용 도모를 위한 홍보 담당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홍보	4	
자료 제공과 더불어 자료에 대한 시스템 구축	1	
협약 등을 통해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	1	

4) 공동보존자료관에 원하는 서비스

공동보존자료관에 원하는 서비스로는 이관된 자료의 개방적인 자료 이용과 희귀본 및 훼손된 도서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훼손자료에 대한 수선 및 복원, 보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 개별 도서관에서는 지역에서 기증받은 희귀자료 중 특히 훼손된 도서의 복원 및 보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도서관에서 신청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외에도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확한 목록 구축, 상호대차서비스 등이 나타났다.

이에 향후 공동보존자료관 서비스 계획 시, 이관된 자료의 이용을 위한 열람 및 대출과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중점으로 개별 도서관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훼손도서의 수선 및 복원서비스 등이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된 자료의 이용과 관련하여 열람, 대출, 원문제공서비스 외 추진되어야 할 신규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호대차서비스와 이관된 자료 기반 도서 특별 전시에 대한 의견이 나타났다(〈표 24〉 참조).

5) 디지털 아카이빙의 범위와 서비스 방향

디지털 아카이빙의 범위와 서비스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디지털 아카이빙이 해야 하는 범위로는 향토자료, 백제학 관련 지역 자료, 도정 자료, 각 시군 발행 자료 등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단행본은 이미 전자책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단행본보다는 향토자료, 지역 특성화자료 등에 대한 아카이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더불어 단행본뿐만 아니라 사진 등의 타 매체도 아카이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표 24〉 공동보존자료관에 바라는 서비스

내용	빈도	시사점 및 정책방향
이관된 자료의 이용 서비스	4	√ 이관된 자료의 이용을 위한 열람 및 대출과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중점으로 훼손 도서의 수선 및 복원서비스 등이 구현
희귀본 및 훼손 도서의 디지털아카이빙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4	
훼손 자료의 수선 및 복원, 보관 서비스	3	
이관된 자료의 목록 구축	1	
상호대차서비스	1	

〈표 25〉 디지털 아카이빙의 범위와 서비스 방향

구분	내용	빈도	시사점 및 정책방향
범위	향토자료, 백제 관련 지역 자료, 도정자료, 각 시군 발행 자료 등	4	√ 향토자료, 지역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 디지털화된 자료는 온라인 검색서비스 및 열람, 출력 서비스 필요
	단행본 뿐만 아니라 사진 등 타 매체도 아카이빙	1	
서비스 방향	온라인 통해서 뷰어 열람 및 출력 서비스가 제공	2	
	온라인 검색 서비스	1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 방향으로는 디지털화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 및 출력서비스와 온라인 검색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 이에 향후 향토자료, 지역 특성화자료 등에 대한 아카이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디지털화된 자료는 열람 및 출력, 온라인 검색 등으로 서비스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25〉 참조).

4.2.3 공동보존자료관 조직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한 협의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공동보존이라는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협력이 가능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나타났으며, 협의체가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는 더불어 협의체는 공동보존자료관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운영 시 소유권, 예산 등 구체적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4.2.4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1) 자료 이관 시 단계적 추진에 대한 의견
 자료 이관 시 단계적 추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료 이관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한 기준, 규정 및 조직, 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후에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1단계를 시작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자료의 선정 기준 및 지침이 우선되어야 혼란이 적을 것이며, 2단계에 대해서,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한 조직과 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더불어 우선적으로 이관을 진행할 경우, 이미 이관 받은 자료가 정책 수립 이후의 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재정리를 위한 시간 및 비용이 발생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향후 공동보존자료관 추진은 기본적인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후에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보존자료관 추진 시기와 관련하여, 공통

적으로 기본적인 운영 기준, 직제, 담당자, 담당 기관 및 협의체 등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해결된 후에 진행되는 것이 적합하며, 당장은 개별 도서관의 보존 서고를 활용하면 되고, 폐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1-2년 안에 비치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으므로, 1-2년 정도 걸리더라도 운영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는 것 원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2) 자료이관 시 소유권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자료이관 시 소유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모두 자료이관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공동보존자료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료 활용 측면에서 소유권이 이전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실물 자료의 관리는 충남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관이 적합하다. 또한 각 지역 향토자료 원문 DB 구축 과정에 사전에 저작권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업무를 개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도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도서가 도서관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관이 쉽지 않을 것이며, 소유권 이전으로 자관의 장서 수가 감소함에 따라 도서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도서관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관 시 제도적 문제나 장애요인을 미리 파악할 필요 있다. 또한 기증도서나 희귀도서의 경우 기증자의 입장에서 허락 없는 자료 이전 및 소유권 이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공동보존자료관의 원활한 운영 및 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이에 따른 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며, 더불어 도서관마다 소유권에 대한 의견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자료 이관에 따른 소유권 문제는 참여 도서관과의 논의를 통해 각 소유권 이전 여부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27〉 참조).

3) 운영 예산

충남도내 공공도서관 사서 및 직원의 인식조사에서 운영 예산(이관경비, 운영경비, 이용경비 등)은 모두 충남도서관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충남도서관이 전반적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이관이나 이용경비의 경우에는 참여 도서관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충남도서관에서 모든 비용 부담 시 이관이

〈표 26〉 자료 이관 시 단계적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단계	+	의견	시사점 및 정책방향
(1단계) 공동보존자료관 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존서고 상황이 안 좋은 도서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자료를 이관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반적인 운영 체계가 이루어진 후에 이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임 √ 우선적으로 이관 진행 시 추후 재정비를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적 이관 진행 보다는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후 운영할 필요가 있음
(2단계) 공동보존자료관 협의체 규정, 관리시스템 등이 완비되면 소유권, 운영비 등은 그 이후 규정에 따른다.			

〈표 27〉 자료 이관 시 소유권

소유권 이전 이유	+	고려사항	▶	시사점 및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보존자료관의 원활한 운영 및 자료활용 위해 • 실물 자료의 관리는 충남도서관에서 하기 때문 • 원문 DB 구축 및 디지털 아카이빙 등 진행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이 도서관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관의 어려움 • 소유권 이전으로 개별 도서관 장서 수 감소에 따른 문제 • 기증도서의 경우 기증자의 허락에 대한 문제 • 지자체와 교육청 도서관의 여건 다름에 대한 부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높지만 각 도서관마다 의견 차이가 많이 나타남 ✓ 이에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참여 도서관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

무분별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에 향후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시,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에 대한 운영경비는 충남도서관이 부담하되 이관경비 및 이용경비의 경우 일부 참여 도서관과의 분담하는 것도 적합할 것으로 파악된다(〈표 28〉 참조).

4.2.5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시스템 구축 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참여 도서관 모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

소속 도서관은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 운영 관리를 위한 인력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축 시 서비스의 범위도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표 29〉 참조).

현재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별도로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2020. 4월) 하였는데, 충남도서관이 통합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 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표 28〉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예산에 대한 의견

내용	빈도	▶	시사점 및 정책방향
이관경비+운영경비는 충남도서관, 이용경비는 각 도서관 부담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운영경비는 충남도서관이 하되 이관 및 이용경비는 참여 도서관이 일부 분담
이관이나 이용경비에 대해서는 충남도서관과 나누어 부담	1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충남도서관이 일괄 부담 단, 이용 측면에 있어서는 일부 이용자 및 개별 도서관 부담	1		
어느 정도는 개별 도서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 (단 충남도서관 비율이 높게)	1		

〈표 29〉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내용	▶	시사점 및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도서관 모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 운영 관리를 위한 인력 마련이 선행 구축 시 서비스의 범위도 정확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도서관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표 30〉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충돌 부분에 대한 의견

내용	시사점 및 정책방향
이용자가 어떤 도서관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자체가 지자체와 교육청 구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 우선적으로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용 도서관이 지자체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자가 어떤 도서관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자체가 지자체와 교육청 구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에 향후 가장 먼저 지자체와 교육청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표 30〉 참조).

4.2.6 기타 의견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에 관한 의견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나타났다. 첫째, 충남도서관의 공동보존자료관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 및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각 지역의 사서 및 도서관 직원들이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해서 생소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안 등의 마련 이후에도,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현실적 제약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과 관련한 이용자 대상 홍보가 필요하다. 공동보존자료관은 사서들도 생소한 개념인데 이용자는 더더욱 생소한 개념일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관된 자료의 원활한 자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료 목록 구축 필요, 충남지역 특화된 자료 위주로 구축 등에 대한 기타 의견이 나타났다.

4.2.7 핵심 그룹 인터뷰 결과 기반 시사점

충남도내 공공도서관 핵심 그룹 인터뷰 조사를 기반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보존자료관 이용여부 및 역할로는 향후 공동보존자료관 이용여부는 공동보존자료관이 어떤 자료를 이관하는지에 대한 기준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충남도서관의 역할은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과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 이관된 자료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셋째, 참여 도서관의 역할로는 이관 자료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여 이관, 이용자 이용도모를 위한 홍보 실시 등이 필요하다.

넷째, 공동보존자료관 서비스는 이관된 자료의 이용을 위한 열람 및 대출과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중점으로 개별 도서관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훼손도서의 수선 및 복원서비스 등이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향토자료, 백제학 관련 지역 자료, 도정자료, 각 시군 발행 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디지털화

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 및 출력서비스와 온라인 검색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다섯째,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동보존자료관 추진에 대한 의견과, 이관 자료의 소유권, 운영경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자료 이관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한 기준, 규정 및 조직, 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후에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모두 자료 이관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나타났으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장서감소 문제, 기증자료 문제 등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경비는 충남도서관이 부담하되 이관경비 및 이동경비의 경우 일부 참여 도서관과의 분담하는 것도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공지사체와 교육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 또한 필요하다.

5. 운영 정책 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서관에 공동보존자료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종합운영방안 미비로 아직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정책 및 추진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진행되었다.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이 수행해야 할 자료의 수집·보존, 이관, 이용, 정리, 시스템 구축 등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공동보존자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충남도내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 및 FGI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제안된 운영 정책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전 문제 해결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은 구축 및 운영 초기에는 참여주체 범위를 충청남도 내 공공도서관으로 한정하고, 향후 공동자료보존관의 운영이 발전기에 접어들면 충청남도 내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자료실 등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에서는 참여 도서관의 보존공간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여 인쇄형태의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우선적으로 이관받고 비도서자료, 기타 자료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활한 공동보존 및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참여 도서관 소속 이용자에 대한 대출서비스는 참여 도서관과의 상호대차를 통해 제공하고, 참여 도서관 소속 이용자의 현장 이용을 위해 공간구성 시 열람실을 마련하고 예약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2)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통합자료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신속하고 편리한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하여 전체 참여 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자료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클라우드 기반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 38.81%, 보통이다 35.08%, 필요하지 않다 26.12% 순으로

나타났으며, 클라우드 기반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전을 포함하여 운영과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44%로 나타나 공동보존자료관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충남도서관은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운영관리시스템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3) 향토자료 보존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 제공

보존자료의 디지털화는 공동보존자료관에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료의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과 관련된 기능이다.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은 충청학, 백제학, 향토자료, 행정자료 등 지역사회와 관련된 특성화 자료(회귀·귀중 자료) 중 장기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자료에 대해서는 복원을 통한 원형보존과 더불어 디지털 아카이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충남도서관의 디지털화 우선순위 자료는 충남권역의 정치, 경제, 문화, 지리, 역사, 인물 등 충청학 자료와 향토자료, 백제의 정치, 경제, 문화, 지리 등 백제학 자료, 기타 공동보존자료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이 있다.

자료의 디지털화는 반드시 저작권 문제가 없거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디지털 파일의 용량, 안정적 보존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화된 파일의 아카이빙은 서버와 연계 구축된 별도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의 영구적 보존을 위하여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은 장기적으로 마이그레이션과 에뮬레이션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은 한 운영체제에서 더 나은 운영체제나 새로운 운영체제로 옮겨가는 과정이며, 에뮬레이션(Emulation)은 디지털 정보를 생성한 시점에서 사용된 하드웨어, 매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운용을 그대로 흉내 내어 그 내용을 읽어내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현하는 보존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중복작업 배제를 통한 예산절감 및 기술적 측면에서 자료의 디지털화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충남도 내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 및 FGI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첫째,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기능은 일반도서 뿐만 아니라 귀중자료 및 향토자료 보존과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의 기준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충남도내 공공도서관들은 해당 도서관 내 보존서고에는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훼손된 자료 등 폐기 이전의 자료들을 이관하지만, 공동보존자료관에는 원형보존과 매체변환 등이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관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 유형은 단행본·참고도서·정기간행물에 대한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각 개별 도서관이 해당 유형을 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료 이관 시 자료 소유권에 대해서는 자료와 함께 자료의 소유권도 함께 양도하는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소유권을 이관하지 않겠다는 의견과, 공동 소유권 형태에 대한 의견도 높게 나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장서 감소 문제, 기증자료 문제 등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동보존자료관 추진에 대한 의견과, 이관 자료의 소유권, 운영경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자료 이관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한 기준, 규정 및 조직,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후에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전담 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92.38%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도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이 기본 모형은 구축 초기에는 충남도내 공공도서관으로 한정되지만 향후 공동보존자료관의 운영이 발전기에 접어들면 참여 도서관의 범위를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여러 관종의 도서관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보존자료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시스템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은영. 2018. 해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193-217.
- [2] 강은영, 장덕현. 2017.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역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207-232.
- [3] 강은영, 장덕현. 2018.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운영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105-129.
- [4] 강현민. 2006.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9-53.
- [5] 박승진, 노영희, 유소영, 김정택. 2016. 충남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139-165.
- [6] 박승진, 노영희, 유소영, 김정택. 2016. 충남대표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및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283-310.

- [7] 노지현, 조용완, 이제환. 2013.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167-195.
- [8] 서혜란, 김선애, 강은영. 2015. 공공도서관 자료보존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111-134.
- [9] 신지연, 김유승. 2011.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129-150.
- [10] 윤희윤. 2013.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5-26.
- [11] 윤희윤. 2013.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51-74.
- [12] 조용완. 2003. 보존 도서관 공동 설립을 위한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0(21): 130-145.
- [13] 조용완, 노지현. 2013. 공동보존서고의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67-397.
- [14] 충청남도. 2018.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미래 정책개발 연구』. 홍성: 충청남도.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22조 (개정 2009. 3. 25)

도서관법 제23조 (개정 2009. 3. 2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Eun Yeong. 2018.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University Libraries in Other Count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materials deposit and servi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193-217.
- [2] Kang, Eun Yeong and Chang, Durk-Hyun. 2017. "A Study on a Regional Cooperative Preservation Program for Public Libra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Busan Metro A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207-232.
- [3] Kang, Eun Yeong and Chang, Durk-Hyun. 2018.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University Libra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National Universities in Busan/Gyeongnam a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105-129.
- [4] Kang, Hyen-Min. 2006.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and Repository Library by Using of Public Library Cooperative Net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29-53.
- [5] Kwak, Seung Jin et al. "Study on Users' Perception for Establishment of Chungnam Representative Library's Basic Pl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139-165.
- [6] Kwak, Seung Jin et al. "A Study on User Service and Enhancement Strategy for Chungnam Representative Librar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4): 283-310.
- [7] Rho, Jee-Hyun, Cho, Yong-Wan and Lee, Jae-Whoan. 2013. "Developing Strategies for a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y at a Regional Level - the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167-195.
- [8] Suh, Hyeran, Kim, Sun Ae and Kang, Eun Yeong. 2015. "The Status Quo and Tasks of the Collection Preservation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2): 111-134.
- [9] Shin, Ji-Yeon and Kim, Youseung. 201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Regional Centr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129-150.
- [10] Yoon, Hee-Yoon. 2013. "Feasibility Analysis of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5-26.
- [11] Yoon, Hee-Yoon. 2013.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51-74.
- [12] Cho, Yong-Wan. 2018. "Research to co-found a conservation library." *Journal of National University Library*, 0(21): 130-145.
- [13] Cho, Yong-Wan and Rho, Jee-Hyun. 2013. "Preservation Environments of Cooperative Library Storag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367-397.
- [14] ChungCheongNan-Do. 2018. *Chungcheongnam-do public library future policy development research*. Hongseong: ChungCheongNan-Do.